

## 우리가 나아갈 길(3)

☞ 지난호에 이어 계속



**곽 춘 옥**  
(주)건지 대표이사

### 4. 대안은 있는가?

있다. 최근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유럽형 '다단식케이지(Broiler cage)'도 있고, 요즘 보통명사화 되고 있는 '고상식 축사'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부족한 만큼 개량되고 개선되기에 세상은 살맛이 나는 것이고, 제품과 업계는 발전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상놈도 양반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기에 살아갈 수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도 독립이라는 염원이 있었기에 일제압박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오늘의 독립국가를 탄생시켰다. 꿈과 희망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을 때 실현되는 것이지 구호만으로는 뜬구름을 잡으려는 것과 같을 뿐이다.

잘못은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려는 고정관념이다.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기에 환경이 변하지 않게 보일 뿐이다.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똑같은 아름다움을 아름답지



▲ 고상식 계사에서 사육 3.5kg의 닭

〈도표7〉 고상식 축사의 특징점

못한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고상식 계사가 국내에 보급된 것도 꽤 시간이 지나 이제는 고상식 설비를 설치한 농장도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이미 고상식 계사를 설치한 농장의 사육 성적이나 수익성에서 증명된 결과가 아닐까?

대형 닭을 국내에서 마음대로 도축할 수 없는 도계장 때문에 목표체중인 2.5kg 이상을 사육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가까스로 사육농가에 양해를 받으며 1.7~1.8kg 내외로 사육하면서 <생산지수 343~

355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이다 (표12 참조). 흑자들은 무 깔짚, 무항생제로 이러한 성적은 무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이하다. 특히 고상식 축



▲ 평사와 고상식 축사 및 사육된 닭의 비교

표 8. 동절기, 하절기 고상식 축사 사육성적

입추 일	출하 일	입추 수(수)	출하 수(수)	출하 중량(kg)	사료량 (kg)	육성율 (%)	평체 (kg)	사료 요구율	사육 일수(일)	생산 지수
12/26	1/26	51,000	49,093	83,165	131,680	96.3	1.69	1.58	30.02	343
7/7	8/10	51,300	49,780	87,945	138,830	97.0	1.77	1.58	30.63	355



▲ TV에 방영된 대형 닭

사에서 사육하며 도계장이나 출하물량 관계로 All-in, All-out을 하지 못하고 보통 3~4회로 나누어 출하하기에 다른 농장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육성적에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또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으로 많은 농장에서 적지 않은 폐사나 성적저조현상이 발생했지만 고상식 축사에서는 평균 1.77kg에 97%의 육성율을 나타낸 것을 보면 계절에 관계없이 전천후 축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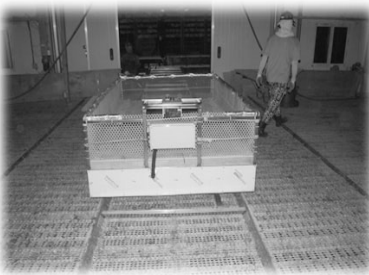
고상식 축사는 중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었고, 일본에도 수출이 이어지며 서서히 보급이 늘고 있다. 신축은 물론 기존 축사에도 고상식은 큰 무리없이 적용되고 있고, 특히 일본은 신규건축

이 어려워 모두가 기존의 평사를 고상식으로 개조하는 농장이다. 물론 고상식 축사가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일 때 농장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고상식 축사에서 닭이 잘 클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계분을 치우는 문제와 닭 출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하였다. 맞는 이야기이다. 우선 첫째로 닭 출하가 문제이다. 현재는 닭 차가 계사 내부로 들어가 어리장에 닭을 던져서 상차하고 있는데 고상식

축사는 닭 차가 계사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니 당연히 닭 출하가 더디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우선 첫째로는 닭 차가 계사 내부로 진입하는 것이 방역관계상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가뜰이나 AI로 비상이 걸려있지만 평소에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닭 차가 계사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양해한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다.

또한 1.5kg 내외의 닭이기에 상차팀들이 상단의 어리장에 닭을 던져서 집어 넣지만 외국처럼 우리도 2.5kg 이상을 사육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중량 때문에 어렵도 없는 이야기이다. 또한 던져서 집어 넣음으로 인하여 멩계, 파계 등 비



▲ 닭 운반수레용 레일

합격품의 발생량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어쨌거나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필자 역시 현실을 충분히 동의하고 현재보다 더 손쉽고 빠르게 닭 출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즉, 고상식 축사바닥에 레일을 깔고 어리장을 통째로 집어넣어 가장 가까이에서 닭을 어리장에 넣고 어리장을 실은 운송차는 인력의 도움이 없이 입구에서 목적지까지, 목적지에서 입구까지 자동으로 이동하기에 더 빨리, 더 손쉽게 상차가 이루어져 시간과 비용은 물론 총체적인 노동력을 줄이고 있다. 또한 기존 닭 차가 왔을 때에도 손에 몇 마리씩 들고 다니는 것을 수십 마리를 한꺼번에 자동수레에 실어 나르니 얼마나 편하고 빠르겠는가(사진 참조)!

계분문제 역시 또 다른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 실험 중에 있으며, 머지않은 시간에 선을 보일 것이다. 즉, 고상식 축사에서 스크레파로 끌어낸 계분을 축사에 다수 설치된 환풍기를 이용하여 계분을 말리고, 말린 계분은 계분보일러의 연료로 활용되어 온수나 온풍을 다시 계사 내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럼으로 인하여 현재 기름을 사용하여 가온을 하는 난방을 계분을 이용함으로써 연료비의 절약을 물론 열풍기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막아주고, 또한 화재 예방에도 완벽한 도움을 주게 되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신기원을 이루게 된다(사진 참조).

이렇게 되면 대부분 외곽에서만 사육되는 농장이 주택근처에서도 얼마든지 양계업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기름연료 사용절감에 따른 탄소배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계분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아도 됨으로 인하여 물류비, 환경저해요인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진정한 친환경축산을 전 개할게 될 것이다.

물론 오랜 시간의 문제점이 일시에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개선하고 풀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 하지만 상황 파악을 해가며 점진적으로 개선해간다면 절대



▲ 계분 건조기

못할 것도 없다. 조물주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이 유(有)에서 유(有)도 창조하지 못한다면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탈무드에도 “실패한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더 바보스럽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파브르는 “인내와 반성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곤란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의지와 행동의 변화가 더더욱 요구될 뿐이다. 어차피 길이 없는 곳에는 누군가 점을 찍어야 하고, 반복하여 점을 이어보면 선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차피 법률이나 정책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요, 시대에 따라 그러한 것은 변천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일 뿐이다.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과거 아날로그시대에는 큰 녀석이 이기는 사회였지만 디지털시대에는 빠른 녀석이 이기는 시대이다.” 누가 바르게, 그리고 발 빠르게 뛰느냐에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양계**